

- 주요 뉴스: 미국, 4월 이후 상호 관세 부과할 계획. 다만 국가별 협상 여지도 부여
 - 미국 1월 근원 생산자물가, 예상치 상회. 근원 PCE 물가 항목은 대체로 안정적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자국을 배제한 미-러의 평화 합의는 수용 불가
 - 일본 1월 기업물가 상승률, 19개월 만에 최고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도 지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상호관세 협상 여지,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완화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즉각적인 상호 관세 보류 및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 기업 실적 호조, 라우 전쟁 종전 기대 등으로 1.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의 큰 폭 하락,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약세 전환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1.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월 생산자물가 일부 항목의 PCE 물가 안정 신호를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금리 영향 등으로 6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37.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9.8원, 0.47% 하락). 한국 CDS 하락

		2/13일	2/12일	전일대비			2/13일	2/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115.1	6,052.0	+1.04%	국채 금리 10y	미국	4.53%	4.62%	-9bp
	유럽	553.75	547.78	+1.09%		독일	2.42%	2.48%	-6bp
	중국	3,332.5	3,346.4	-0.42%		영국	4.49%	4.54%	-5bp
	일본	39,461	38,964	+1.28%	CDS 5y	한국	31bp	32bp	-1bp
	한국	2,583.2	2,548.4	+1.36%		중국	46bp	49bp	-3bp
환율	달러지수	107.06	107.94	-0.81%	위험 지표	EMBI+	-	357	-
	유로화	1.0465	1.0383	+0.79%		VIX	15.10	15.89	-4.97%
	엔화	152.80	154.42	+1.06%		WTI유	71.29	71.37	-0.11%
	위안화	7.2879	7.3069	+0.26%	원자재	구리	478.4	470.5	+1.69%
	원화	1,446.6	1,456.0	+0.65%		금	2,928.2	2,904.0	+0.8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지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4월 이후 상호 관세 부과할 계획. 다만 국가별 협상 여지도 부여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 및 상무부에 모든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1일까지 모든 조사를 종료하고, 이후 상호 관세가 즉시 시작된다고 발언
- 이번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을 가진 이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련되고 시행될 예정. 또한 불공정한 보조금, 규제, 부가가치세, 환율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방침. 다만 상대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킨다면 미국 역시 이에 따라 상호 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
-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어떤 구체적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으나, 결국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Bloomberg Economics). 다만 일부에서는 상호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언급했던 보편 관세와 비교해서는 상대국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월 근원 생산자물가, 예상치 상회. 근원 PCE 물가 항목은 대체로 안정적

-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연간 상승률은 3.5%로 전월(3.3%) 및 예상치(3.2%) 대비 높은 수준. 월간 상승률은 0.4%로 전월(0.5%) 대비 낮으나 예상치(0.3%) 상회. 근원 PPI의 경우 연간 상승률이 3.6%로 전월(3.7%) 대비 둔화되었지만 예상치(3.3%) 상회. 월간 상승률은 0.3%로 전월 및 예상치(각각 0.4%, 0.3%) 대비 둔화 및 보합
- 일부에서는 헤드라인 PPI 및 근원 PPI가 대체로 예상치 상회하여 인플레이션 재반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 이는 전월비 식품(1.1%) 및 에너지(1.7%)의 가격 상승에 기인. 다른 한편에서는 연준이 중요시하는 PCE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라면서 상반된 의견 피력(Capital Economics)
- 현재 CME의 FedWatch는 금년 1회(7월 혹은 9월, 0.25%)의 금리인하를 예상. 한편, 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1.3만건으로 전주(22.0만건) 및 예상치(21.5만건) 대비 적은 것으로 확인. 이는 노동시장이 대체로 여전히 견조하다는 기존의 시각을 뒷받침

■ 미국 뉴욕 연은, 소비자 부채 현황은 대부분 양호. 자동차 부문은 일부 위험 내재

- 작년 4/4분기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부채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 이는 대체로 가계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모기지 대출 상황 역시 나쁘지 않다는 점에 기인. 다만 자동차 관련 부채는 일부 고금리 적용에 따른 위험이 다소 존재한다고 진단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자국을 배제한 미-러의 평화 합의는 수용 불가

-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평화 합의를 맺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 평화 합의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이와 관련된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 및 빼앗긴 영토 수복 불가 등 러시아에 유리한 방안을 검토

■ 영국 '24년 4/4분기 GDP, 전기비 증가. 서비스업 및 건설 생산 등이 호조

- 작년 4/4분기 GDP는 전기비 0.1% 늘어 예상치(-0.1%) 상회. 이는 서비스와 건설부문의 양호한 생산(각각 0.2%, 0.5%)에 기인. 다만 1인당 GDP는 전기비 0.1% 감소했고, 이는 소비자의 재정에 대한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는 의미

■ 중국 인민은행, 적절한 시기에 경기 역풍 극복을 위한 정책 조정에 나설 방침

- 작년 4/4분기 정책집행보고서에서 외부 여건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이를 감안하여 금리와 지급준비율 등 정책 조치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며, 특히 유동성 확대를 통한 적절한 수준의 물가상승을 유도하겠다고 강조

■ 일본 1월 기업물가 상승률, 19개월 만에 최고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도 지속

- 1월 기업물가는 전년동월비 4.2% 올라 작년 6월 이후 최고 수준. 이는 전기 및 도시가스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 한편,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전망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의지 등을 반영하여 전일비 상승(1.35%, +1bp),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미국 달러스 연은 로건 총재 발언
- 유로존 4/4분기 GDP, 스페인 1월 소비자물가, 중국 1월 신규은행대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 - WSJ (Trumponomics and Rising Inflation)

- 작년 9월 연준의 50bp 금리인하 이후, 장기 채권 금리는 상승. 이에 더해 11월 추가 금리인하(25bp)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 일례로 작년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서 3%대로 상승했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 발생. 이를 감안하여 연준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금리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정부 심판 요구도 강화될 소지. 이에 트럼프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

■ 미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 여론과 경제적 결과만이 제어 가능할 전망 - Financial Times (Trump fought the trade law, and Trump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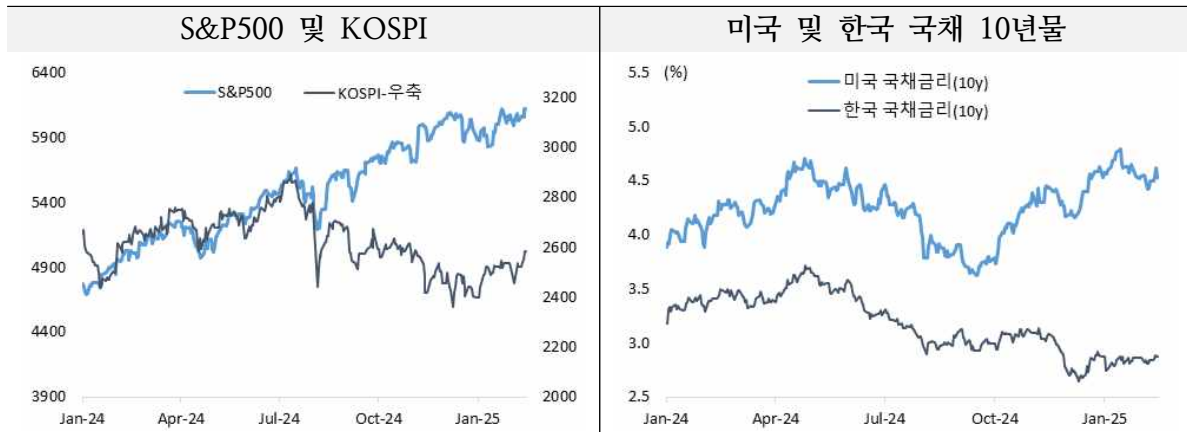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최혜국대우 등 WTO의 주요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나,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속력 한계로 실질적인 견제는 기대난. 또한 트럼프는 자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하여 의회 승인 없는 관세 부과가 가능. 사법부도 대외정책 관련 대통령 권한 제한에 소극적
- 이에 국내외 사법체계만으로는 트럼프 정책 저지가 어려우며, 정치적 반대와 경제적 결과가 필요. 다만 과거 민주당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동조했기에 지금은 정부의 전방위적 보호주의를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 비용과 여론의 부정적 반응만이 실질적인 제동장치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국부펀드 설립 추진, 재정 낭비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Beware the US 'Sovereign Wealth Fund' boondoggle)

- 트럼프 행정부의 국부펀드 설립 추진은 소모적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와 모순. 국부펀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세금 인하, 미래 세대의 경제적 안정, 국제 리더십 구축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제시. 만일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될 경우 결국 납세자 돈이 낭비되고, 민간 투자자를 혼란에 빠트리며,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
- 국부펀드를 조성하려면 정부부채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는 위험자산 투자를 위해 부채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 또한 이미 위험한 수준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시장 왜곡과 정치적 개입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요구

- 연준의 통화정책, 트럼프 정책의 동맹이자 희생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 블룸버그
(The Fed Is Both Ally and Scapegoat for Trump)
 -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무역 전쟁 지원을 위해 연준에 금리인하를 원했지만, 실행되지 않자 파월을 비판. 또한 인플레이션 급등 당시 낮은 금리 인상 등 연준의 해결 능력에 의문을 제기. 이와 같이 트럼프는 일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연준 의장에 책임을 전가
 - 하지만, 시장은 대통령의 관점과 상이. 채권시장은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했지만, 연준의 역할 수행으로 균형점 도달을 기대. 아마도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 실행은 오히려 장기 차입 금리를 더욱 높였을 것으로 추정. 이에 트럼프 정책 의제와 연관된 금리 위험은 연준이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금리 결정 논쟁, 인플레이션 기대가 쟁점으로 재부각 - 블룸버그
(Inflation Expectations Are Back in the Debate Over Fed Rates)
- 미국의 철강 관세, 공급 부족가격 상승 등으로 자신이 최대 피해국일 가능성 - Reuters
(US is biggest loser from Trump's metals tariffs)
- 미국의 라우 종전 협상, 러시아 요구에 대부분 부합. 우크라이나 실익은 미미 - 블룸버그
(Trump's Ukraine Deal Looks Great — for Putin)
-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중단, 최빈국 부채 위기 증폭시킬 우려 - Reuters
(Ending US aid will heat up sovereign debt fights)
- 유럽,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독자적인 미래 구축할 필요 - Financial Times
(Can Europe get over its break-up with th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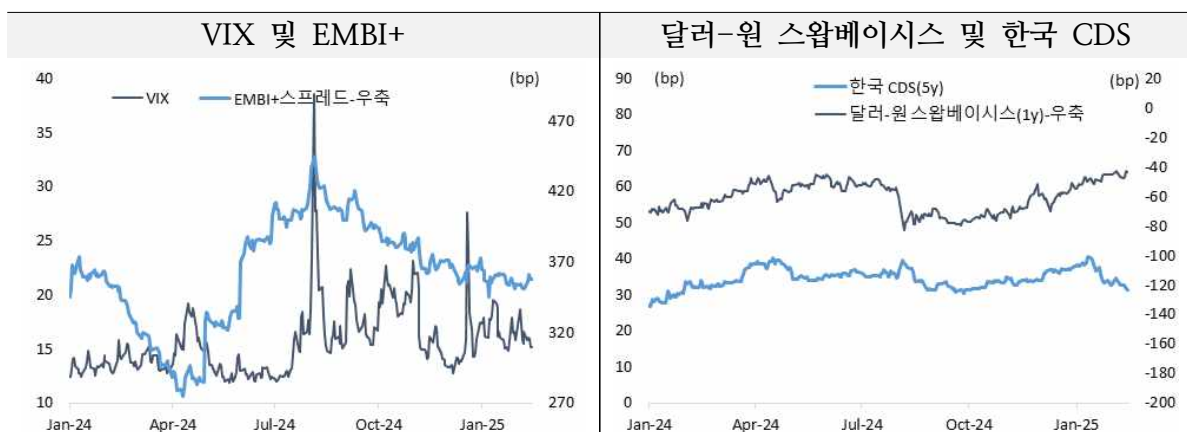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